

호국부터 통일까지 민족사 담긴 도량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한다

1) 역사, 전통으로서의 전등사

강화도는 삼국시대부터 서해 일대의 주도권을 좌지우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곳에 자리한 전등사도 그 유구한 역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근대화를 겪으면서 전등사는 관광사찰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졌다. 최근 전등사는 이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불사를 진행 중이다. 변화하는 전등사의 면모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전등사 대웅보전에 있는 나무상. 선조들의 해학이 담겨있다.



강화 전등사 전경. 유구한 역사를 거머쥔 현재의 면모를 가졌다. 최근에는 무של 불사와 금강경 독송 기도 법회를 통해 신행 사찰로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일명 정족산 사고인 장사각은 일제 강점기에 반출되기 전까지 군사가 주둔하며 지켰던 중요한 사고였다. 그만큼 조선시대 전등사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초다.

흔히 고찰로 오르는 길에는 오욕의 세월을 그대로 맞이했을 고목들이 길 옆으로 들어서 있다. 그래서인지 항상 고찰로 가는 길은 낯설지가 않다. 언젠가 한 번은 외뿔을 법한 기시감이 고찰로 가는 길에는 항상 존재한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주지 범우)로 가는 길에도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다. 정족산 삼랑성 남문에서 시작한 숲길을 걸어 오르면 가슴부터 시원해지는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 숲길을 안에는 천년 고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다.

전등사의 역사는 고려려 소수림왕 11년인 서기 381년 아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를 창건함으로써 시작한다. 그 뒤 고려 고종 46년(1259)에 삼랑성에 가를 짓게 했으며, 원종 5년(1264)에는 대불정오성도량을 낙 담당한 열었다. 원종 7년(1266)에는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진행되었다.

본래는 진종사였던 사찰명이 '전등사'로 변한 것은 고려 충렬왕비 정화공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화공주가 옥등(玉燈)을 불전에 시주해 사찰명이 바뀐 것으로 전해지나 주지 범우 스님이 전해는 조금 다르다.

정화공주의 명을 받들어 인기 스님이 전한 송나라 대장경과 《경덕전등록》때문이라는 것이다.

범우 스님은 "단순히 옥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명이 변경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인기 스님이 전한 《경덕전등록》을 포함한 대장경을 보장하게 된 사찰이라는 뜻에서 전등사로 이름이 굳어진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해사 임승익이 지은 《대조루중건묘연문》에서도

부처님 법 전하는 사찰이자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성지

근대에는 개성군 일대 총팔

최근 불사 통해 변화 준비 중

“육조의 의발을 상수하는 뜻에서 전등사라고 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랑성 안에 위치한 전등사는 대몽항쟁 등 역사적으로도 호국불교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몽고와의 전투를 위해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등사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지켰다. 이렇게 수습된 민심은 해인사에 보장된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 원력이 됐다.

여러 차례 국난을 겪으면서 전등사가

나라와 왕실의 안정을 기원하는 호국성지이며 왕실의 종찰로서 임지를 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유였다. 조선 현종 원년(1660)에는 왕실의 세보를 비롯한 실록을 강화로 이전해서 보관하기 위해 전등사 경내에 선원각과 장사각을 짓는다. 이후 숙종조에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들을 전부 정족산 사고로 옮기게 된다.

정족산 사고는 중요성은 건물에서도 나타난다. 여타의 사고들과 다르게 병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취항각'이 있었으며, 안에는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도 상주했다.

하지만 1886년 10월 14일 일어난 병인양요(丙寅洋擾)는 전등사에 쓰러린 상처를 남겼다. 프랑스 선교사 학살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한불통상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강화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는 얼마 안 가 조선의 강경한 방어에 부딪힌다.

이들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전등사 일대를 수색하고 사찰의 소중한 기물들을 유린한다.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까지 이어지며 강화의 불교유적들은 거의 소실된다.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까지 전등사는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함께 했다. 1911년 사찰령 반포에 의해 교구본사가 된 전등사는 강화, 개성 등 여섯 개 군

에 소재하는 34개 사찰을 본사로 승격하게 된다. 1934년에는 전문 강원이 설립됐고, 본말사지도 편찬됐다. 하지만 6.25 동란 이후 남북이 갈리면서 본사는 남쪽에, 말사들은 북쪽으로 나뉘지는 아픔을 겪었다.

수많은 외침과 동란을 겪으며 민족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해온 전등사를 바라보는 역사적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지리적으로는 서해안의 관문 사찰이면서, 호국 성지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근현대 이후에는 분단의 역사를 가진 한국 유일의 사찰이기 때문이다.

주지 범우 스님은 "전등사는 유구한 시간동안 자신의 역할을 하며 지역과 함께 호흡해왔다"며 "인연·강화 지역 사찰 중 본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전등사가 유일한 만큼 서해안 관문 사찰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서부 수도권을 책임지는 신행 사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등사가 각종 불사와 법회를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경, 장단, 개풍 등 말사가 있는 분단 사찰은 전등사가 유일하다"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생각하는 사찰로서의 면모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간화선 세계화 기치 올리겠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11일 개원2주년 기념법회 봉행

개원 2주년을 맞은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정)가 11월 11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前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총무원 재무부장 일감,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 증명법사로 나선 보선스님은 법에서 “불법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라”며 “자기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하고 천천히 수행하라”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일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국제선센터는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평가하고 “세계 속의 한국 불교가 선양되는 중심 허브를 역할을 하기 위해 모든 사부대중이 깊은 관심과 동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법정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국제선센터를 사랑하는 많은 대중들의 공의를 모아 설립취지에 맞게 노력하겠다”며 “한국불교 세계화와 포교 거점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선센터는 지난 10월 13일 양천공원에서 진행된 ‘2012 가을한마당’의 수익금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 500만원과 국수 1500인분을 양천구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11월 11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개관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 여성이 전용 교육관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갖는다. 또한 창립12주년 기념식도 함께 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11월 2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과 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어 4시 30분 조계사 불교대학 인근에 마련된 전용 교육관에서 남상민 원장(한국에절문화원)

의 자수예술작품전인 ‘자수팔상전 석가세존의 생애’ 전시회를 개막한다.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은 12월 임기를 마치는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장에 이어 7대 선임원장으로 정경연 산업미술대학원장을 선출했다. 정경연 선임 불교여성개발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도 겸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해요

동행, 28일 환경 세미나 개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재단이 환경도크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한다.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동행에서 새롭게 펼치는 야심찬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후원단

체를 결성해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캠페인으로 넓혀갈 생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발표 주제는 ‘지구 온난화, 지속가능한 대안적 삶을 꿈꾼다(환경재단 대표 최열)’,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살기(에코보다 대표 유정길)’ 등이다.

이밖에도 동행은 올 하반기 선재의 선물 네 번째 이야기 ‘책가방 보내기 캠페인’을 12월 1~31일까지 개최한다. 또한 12월 5일 후원의 밤을 개최 자비나눔 기금마련행사를 펼치며 이는 불교방송에서 특별 생방송된다. 정혜숙 기자

불교의식 학인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7기생)

팔공불교대학에서 초심자라도 불교의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7시 ~ 10시)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접 수 : 2012년 11월 25일(일요일)까지

1) 교육 과정 (내용)

도량식, 중송, 향수해제,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각단불공

2) 재의 시식편

천도재, 시달림, 방생의식, 관음시식, 상응영반, 구병시식

(범음범패와 의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팔공 IC 5분거리)

☎ 053)986-1080, 010-9361-5566

팔공 불교 대학 학장 일관 합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스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바른자세헬스케어진흥원
Straight Posture Health Care P.A